

“해남군 정책 빛났다”...기관평가 108건 수상 ‘역대 최다’

농정분야 4관왕 등 전 분야 두각...농업 중심지 입증
명현관 군수 “내년에도 전 군민 합심해 위상 높일 것”

해남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각 분야 별 종합평가에서 기관 표창 108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18건 늘어난 수치로, 해남 군정에 대한 대외 평가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

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사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 한국소셜 콘텐츠진흥협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

우수상,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성과평가 대상,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대상 기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및 지방소멸 대응 유공기관 표창 등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농어촌 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분야에서 상이 대거 쏟아졌다.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와 농식품유통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친환경농업 업무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명실상부 전남도

농업 중심지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대상, 기상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2년연속 최우수상, 식량·원예업무 평가 최우수상,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가축방역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차지하며 1등 농업군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

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전남 유일 6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하고, 2024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 인사분야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 전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대상,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등 공평·공정·공개의 군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도 이어졌다. 해남미남축제가 전남도 대표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됐고, 강해영 프로젝트가 트래블쇼 2024 최우수 콘텐츠상을 수상

했으며, 2023-2024 시즌 전지훈련 시군 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역대 최다 기관 표창 수상은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일군 성과”라며 “열심히 일한 평가로 연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뜻깊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 감사하며 내년에도 전 군민이 합심해 해남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힐링 명소 ‘각광’

이용객 전년比 30% ↑ ...169ha 넓은 공간 자랑

강진군 신전면에 있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사진)의 올해 숙박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숙박료 수입이 지난해 3억원 대비 올해 1억원이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작산은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웅장한 산세와 봄철 만개하는 진달래 군락으로 유명하다.

이 명소는 수많은 사진작가와 등산객을 매료시키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69ha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24동과 휴양관 10동을 비롯해 야영 데크장, 세미나실, 등산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올해 휴양림은 ‘임(林)과 함께 3월 살기’ 프로그램, 장애인·다동이 가정과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 ‘반값여행’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평일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방문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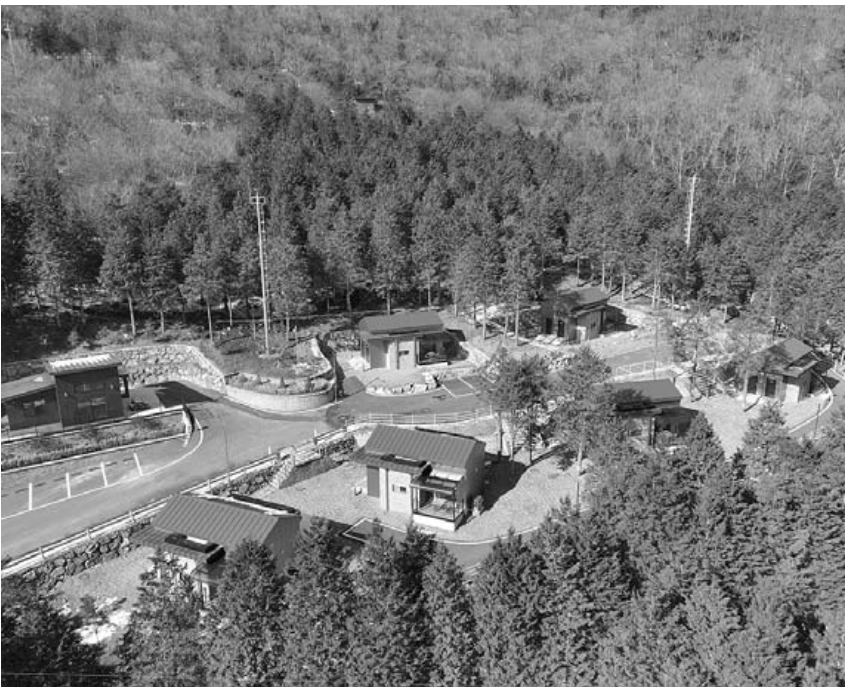
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진군은 내년에 휴양림 내 시설 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산림레포츠 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작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성공적인

관광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시설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강진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숲나들이e’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특별한 쉼을 즐기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최적의 여행지로 꼽힌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공공예금 이자 수입 89억 확보

전년 이자 수입比 41% 추가 세수...재정 건전성 강화

신안군은 30일 “올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9억원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경기 침체와 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더욱 뜻깊다.

특히 지난해 이자 수입 48억원 대비 약 41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의미

를 더했다.

신안군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를 대비해 실시간 계좌 모니터링, 예금 분산 예치, 장·중·단기 순환 방식 등 선제적 자금 관리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내년에도 정기예금 기간과 이자율 비교, 수시 입출금계좌(MMD

A) 개설 등을 통해 군 재정 여건에 맞는 최적의 예금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세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월별 자금 수요를 분석해 보통예금의 유·유 자금운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열악한 군 재정 살림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식을 강구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신 소득작목 ‘제라몬’ 레몬 첫 수확

국산품종 1호...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원 기대

무안군은 30일 “레몬 시범사업 농가에서 올해 ‘제라몬’ 레몬을 첫 수확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새로운 소득작목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윤남면의 김천중 농업인이 900㎡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레몬 국산품종 1호인 ‘제라몬’ 품종 200주에서 레몬 생산에 성공했다.

무안군 레몬의 예상 수확량은 1t 이상으로 온라인과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될 예정이다.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레몬은 수입산과 달리 겉껍질에 왁스코팅 및 화학 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유통돼 흐르는 물에 먼지나 이물질잔

깨끗이 씻어 샐러드 드레싱, 레몬청, 레



김산(왼쪽) 무안군수가 윤남면 김천중 농업인의 레몬 재배 농가를 찾아 ‘제라몬’ 품종 재배 현황과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5천만원 확보

목포시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노력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목포시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실적,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및 활성화 대책, 물가정보 조사·공개, 명절·피서철·전국소년 체전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도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



목포시가 지난 10월 항구축제를 앞두고 목포 종합수산물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피켓을 들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지호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

력을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단행

젊은 인재 전진 배치...다자녀 양육 직원 우대

영암군은 “최근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국장제 전면화, 젊은 인재 전진 배치 등 공직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영암군은 ‘국장제 전면화’를 통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4개국

으로 확대 개편된 조직을 국장이 총괄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퇴직 임박 직원 주요 보직 부여’로 공직자들이 마지막까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젊은 인재 전진 배치 및 직렬 간 배려’도 주목된다. 영암군은 젊은 인재들

을 전진 배치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렬 간 균형 있는 승진 기회 제공과 고른 배치를 통해 조직 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주 직원 및 다자녀 직원 우대’ 정책을 실시해 영암군에 거주하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우대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공직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정책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은 관광객들이 1층 탈라스소피에서 해양 테라피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해양치유센터, 신년 맞이 50% 할인

내달 1일 선착순 150명...이용 후기 이벤트도 풍성

완도해양치유센터는 30일 “개관 1주년 기념 및 새해를 맞아 내년 1월1일에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50% 특별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고객에게는 선착순 150명에게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인기 테라피 제품인 유자 테라피 마스크팩을 개인당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면 1명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평일에 기본 프로그램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관계자는 “이용 후 네이비 영수증 리뷰 또는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증정하고, 개인 블로그에 체험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여행 선물 세트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완도=윤보현 기자